

배울 말 씀 : 욥 1:1-2:10, 42:1-10

읽을 말 씀 : 욥 42:2

외울 말 씀 :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욥 23:10).

메인 아이디어 :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강건한 사람이 된다.

포인 트 : 힘든 때에도 하나님을 믿어요!

- 목 표
- ❶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안다.
 - ❷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다스리심을 믿는다.

준비물 : 생각마당 시각자료 21과, 말씀마당
그림책(가림막), 어린이용 교재
21과, 풀

설 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다. 성경 시대의 의인이었던 욥은 하루아침에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의 원인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욥은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했다.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어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때, 하나님은 이러한 욥에게 특별한 질문을 하셨다. “너는 내가 땅을 만들 때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호수와 바다의 물을 마치 문을 닫는 것처럼 막아서 해변에 넘치지 않게 하였느냐? 누가 번개와 천둥의 길을 만들었느냐? 누가 비를 내리게 하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셨다. 욥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이 겪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 주권자 하나님을 알게 된 욥은 정금과 같이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였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정금과 같은 단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이다.

21과에서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하자.

핵심 단어

욥의 시기 | 욥이 어느 시대의 인물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개 족장 시대(아브라함-요셉의 시기) 정도로 본다. 왜냐하면 욥은 한 대가족의 우두머리로서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많은 종들의 생활까지 책임을 지고 있고,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에는 아브라함 등과 같은 대가족 족장의 문화가 나타나지 않으며, 욥이 살던 우스 땅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구속사의 점진적 발전 면에서 볼 때, 욥은 이스라엘의 형성 이전에 살았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추론이다.



READY!

생각마당 시각자료 21과를 뜯어둔다.

GO!



(‘예배하는 하람이’를 보여주며) 여러분, 이 친구의 이름은 ‘하람이’예요. 하람이는 하나님을 잘 믿는 어린이예요. 하람이는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집에서 엄마와 아빠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뒷면의 ‘아픈 엄마를 바라보는 하람이’를 보여주며) 그런데 하람이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아픈 엄마를 가리키며) 저런! 엄마가 아파서 누워 있어요. 하람이가 참 속상하고 힘들겠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속상하고 힘든 적이 있나요? (대답을 듣는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알아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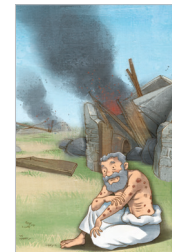
READY!

- ① 말씀마당 그림책을 준비한다.
- ② 말씀마당 그림책 가림막을 준비한다.

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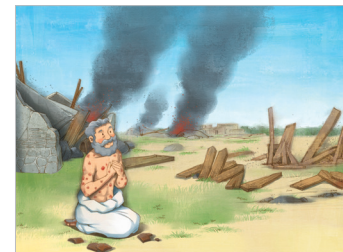
(가림막으로 21-1의 ‘고난받는 욥’을 가리고, ‘고난받기 전의 욥’을 보여주며) 옛날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욥은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갔어요. 하나님도 이런 욥을 칭찬하셨어요.



(가림막으로 21-1의 ‘고난받기 전의 욥’을 가리고, ‘고난받는 욥’을 보여주며) 그런데 욥에게 아주 힘든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욥에게 종들이 찾아와 말했어요. “큰일 났어요! 나쁜 사람들이 주인님의 동물들을 모두 빼앗아 갔어요.” “큰일 났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갑자기 엄청나게 센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집에 있던 주인님의 아들딸들이 모두 죽고 말았어요.”

욥은 한꺼번에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 온몸에 피부병까지 생기고 말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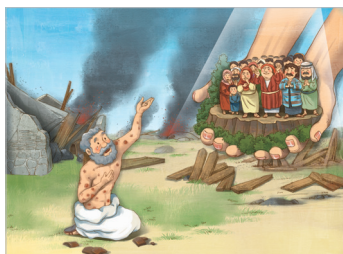


(21-2를 보여주며) 큰 어려움을 당한 욥은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가져가셔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욥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욥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힘든 일이 다 끝나면 자신의 믿음

이 금처럼 빛나고 단단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욥 23:10).

이렇게 욥은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21-3을 보여주며) 하나님은 이런 욥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힘든 일을 겪는 욥을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욥아, 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니?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니? 이 모든 것을 나는 알고 있단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가 만들었고, 또 내가 나의 뜻대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도 모두 알고 계시는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해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욥 42:2)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잘 믿은 욥에게 복을 주셨어요. 욥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READY!

- ① 말씀마당 그림책을 준비한다.
- ② 어린이용 교재 21과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어린이’를 어린이 수만큼 뜯어둔다.



★ 생활마당에서도 계속 사용함.

GO!

1. (21-2를 보여주며) 한꺼번에 큰 어려움을 당한 욥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 (21-2를 보여주며) 욥은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욥은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 (21-3을 보여주며) 하나님은 욥에게 무엇을 가르쳐주셨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알려주셨어요.)

2. (21-3을 보여주며)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해요.)

욥은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어린이’를 나누어준 후, 지구를 가리키며) 이 어린이를 둘러싼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말해요.

저를 따라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어린이’를 보여주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다스리세요. 또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일도 다스려주세요.

저를 따라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세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어린이’를 높이 들고) 저를 따라 그림 카드를 높이 들고, 말해보세요.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믿어요!**”

READY!

- ① 어린이용 교재 21과를 안내된 방법에 따라 어린이 수만큼 만들어둔다.
- ② 배움마당에서 사용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린이’를 준비한다.
- ③ 풀을 준비한다.



- ① 어린이용 교재를 선을 따라 접고, 배움마당에서 사용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린이’를 붙여 입체 카드를 만든다.



- ② 입체 카드 양 끝에 ‘하나님의 손’을 같은 기호끼리(★-★, ♥-♥) 맞추어 붙인다.

GO!

그림을 보며,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아요. (입체 카드를 나누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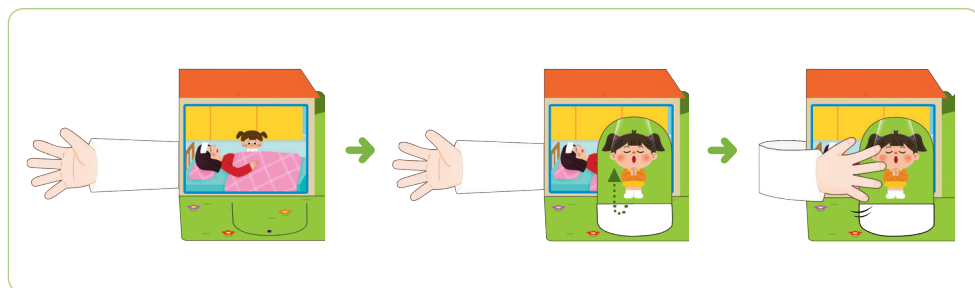
- ① (‘아픈 엄마’를 가리키며) 어떤 그림인가요? (대답을 들은 후) 엄마가 아파서 누워 있어요. 여러분도 엄마나 아빠가 아파서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대답을 듣는다.)
(★ 부분을 접어 세우며) “네!”라고 말한 어린이는 저를 따라 이 부분을 접어 세워보세요. (시간을 준다.)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세요.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접었을 때 나온 여자 어린이를 ‘하나님의 손’으로 쓰다듬으며) 저를 따라 ‘하나님의 손’으로 어린이를 쓰다듬으며 말해보세요.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활동해보세요

엄마나 아빠가 아파서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어요.

저를 따라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엄마(아빠)가 아파요. 엄마(아빠)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② (‘부모님과 헤어지는 어린이’를 가리키며) 한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가는데 엄마, 아빠와 떨어져야 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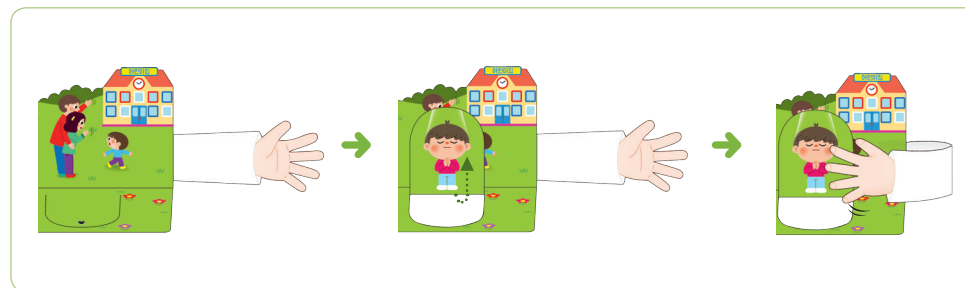
여러분도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대답을 듣는다.)

(♥ 부분을 접어 세우며) “네!”라고 말한 어린이는 저를 따라 이 부분을 접어 세워보세요. (시간을 준다.)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세요.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접었을 때 나온 남자 어린이를 ‘하나님의 손’으로 쓰다듬으며) 저를 따라 ‘하나님의 손’으로 어린이를 쓰다듬으며 말해보세요.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활동해보세요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어요.

저를 따라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슬퍼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믿으며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대답을 듣는다.)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하는 어린이는 저를 따라 말해보세요.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믿어요!”



기도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제가 당하는 어려움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요.
제가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믿어요!

